



미국,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산업의 과제

김진억 수석담당역

■ A.M. Best의 조사¹⁾에 의하면 미국에서 사이버 리스크의 지속적 증가에도 보험을 통한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고 보험회사의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공급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.

- 미국은 보험을 통한 사이버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 비교적 인식²⁾이 낮았으며 최근 사이버 범죄 발생이 급증³⁾하고 기존 사이버 보험이 사이버 리스크를 적절히 보상해주지 못하는 시스템실패가 일어나면서 사이버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.
 - 조사 대상 전체 보험회사 중 14%⁴⁾만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, 이중 단독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57%뿐이고 나머지는 E&O보험⁵⁾, 재산/영업중단보험 그리고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묶여서 판매되고 있음.
 - 사이버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의 보험료수입은 2014년 1억 달러 미만이었으며, 2015년에도 1억 달러 미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 - 사이버 보험을 제공하는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많은 면책조항과 함께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, 판매보험회사의 61%가 보험상품 가입금액 한도를 1백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여 보상 수준이 미흡함.
- 보험회사들조차 사이버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47%에 불과하며, 대부분 가입금액도 1백만 달러에서 5백만 달러로 낮음.
 - 또한 보험회사 내에서도 72%의 보험회사가 IT부서를 통해 정보보안과 일반 IT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, 사이버 리스크를 전담하는 특별 부서를 통해 관리하는 보험회사는 3%에 불과해 사이버 리스크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가 취약함.

1) A.M. Best(2014, 12, 5), Best's Special Report, "A.M. Best Fall 2014 Insurance Industry Survey"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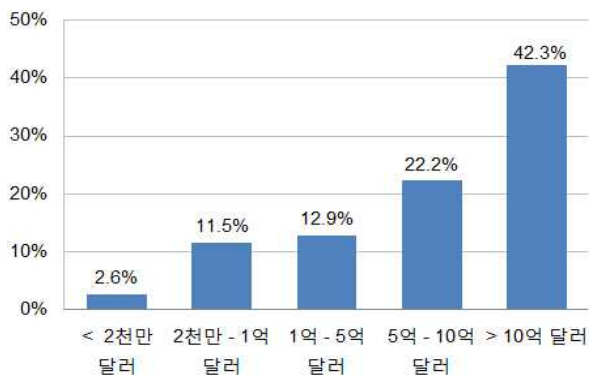
2) 미국 NAIC는 최근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보험 이슈를 조정하기 위해 특별 TF를 구성하였으며, 2014년 3월에는 보험정책 및 연구센터(CIPR)와 함께 시장 동향과 보험 업계가 직면한 사이버 배상 책임 리스크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함.

3) 금번 조사에 의하면 전체 15%의 보험회사가 데이터 유출 또는 사이버 공격을 경험했다고 인정하였으나 데이터의 집적도가 높은 자본규모 5억 달러 이상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37% 이상이 데이터 유출 또는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.

4) 조사에 응답한 보험회사의 68%는 손해보험회사, 22%는 생명/연금보험회사, 9%는 건강보험회사, 1%는 기타임.

5) E&O(Errors & Omissions)보험은 불충분한 작업 또는 과실 행동에 의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전문배상책임보험임.

〈그림 1〉 보험회사의 자본규모별 사이버 공격 피해 경험



〈그림 2〉 보험회사의 사이버 보안 담당 부서



출처: A.M. Best research & data.

■ 미국 보험시장에서 기업들이 적절한 사이버 배상책임 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고 보험회사들도 보다 보편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장애 요인으로 데이터 부족, 법률적 환경의 정비 부족, 사이버 보험의 효과성 논란 등이 지적되고 있음.

- 데이터의 부족: 무수히 많은 사이버 공격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터가 부족함.
 - 주식회사의 경우 데이터 유출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게 되어 있지만 공시되어야 할 정보에 대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과 공시되어야 할 정보의 정의가 없음.
 - 공시할 정보의 불명확성과 더불어 기업 명성과 경영성과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공시를 꺼리는 이유임.
 - 이로 인한 데이터의 부족은 계리 분석을 어렵게 만들며 사이버 배상책임 보험의 설계와 가격산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.
- 법률적 환경의 정비 부족: 지금까지 사이버 보안문제에는 범죄와 사기에 관한 일반법과 함께 연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음.
 -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데이터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회사와 기업 간의 공방이며, 이는 기업성 일반 배상책임 보험이 데이터 유출을 보장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.
- 사이버 보험의 효과성 논란: 상기한 두 가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이버 보험이 사이버 범죄의 비용과 발생빈도를 감소시키는데 기업에 도움을 주는지의 문제와 관련됨.
 - 현재 상황에서 사이버 보험 가격산출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고, 기업들이 법적 소송을 통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 사이버 보험의 효과성이 의문시됨.
 - 한편 만약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고 법적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면 기업들은 사이버 보험 가입으로 사이버 보안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소홀(모럴헤저드)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데이터 유출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■ 사이버 보안 공격의 속성과 그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기법을 좀 더 정교하게 개발하고 기업은 사이버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정책과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정부 또한 법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- 기업은 데이터 유출 등의 공시가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신뢰성 있는 공시 등을 통한 데이터 제공은 주주의 기업에 대한 신뢰 제고와 함께 계리적 분석과 적절한 가격산정에 반영됨으로써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.
 - 보험회사는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, 사이버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됨.
- 정부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이버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규제적 환경과 명확한 법적 체계를 적절히 개선함으로써 보험회사들과 기업들이 직면한 혼란을 경감할 수 있게 됨.

(A.M. Best 등)